

기호 1 총청연회 감독선거 박세영

소 속 총청연회 대천남지방 대천중앙교회
 생년월일 1960년 1월 4일

학 력
 1979.3-1986.2 목원대학교 신학과 졸업(신학사)
 1989.9-1991.8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졸업(문학석사 기독교교육전공)
 2009.3-2010.8 국제문화대학원 대학교 졸업(행정학석사-사회복지학 전공)

목회경력
 1986-1990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 논산지방 성동교회개척 담임
 1988.3.29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 준회원 허입
 1990.3.23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 목사 안수
 1992.3.26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 정회원 허입
 1990-1997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 논산지방 장전교회 담임
 1997-2000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 논산지방 논산제일교회 부담임
 2000-2001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 논산지방 마닐라한인교회 담임
 2001-2003 기독교대한감리회 삼남연회 부산서지방 선한이웃교회 담임
 2003.9.23 기독교대한감리회 총청연회 대천남지방 대천중앙교회 담임

주요경력
 1994 제 14 회 크리스천신문 신인문에 단편소설 부문 입선으로 등단
 2006-2016 법무부 위촉 흥성교도소 교정위원 역임
 2006-현재 (사)두란노아버지학교 위촉강사 및 총서지부 지도목사
 2008-2009 보령시기독교연합회장 역임
 2008-현재 사단법인보령선한이웃 대표이사
 2009-현재 보령시기독교연합 이단대책위원장
 2011-2012 기독교대한감리회 총청연회 대천남지방 감리사 역임
 2014-2016 기독교대한감리회 출판국 위원 역임
 2016-현재 보령해양경찰서 경목위원장
 2016-2018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거관리 위원 역임
 2018-현재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평신도국 위원



저 서
 [아빠 위해서 돈 벌지] 서울 컨플다야사 1995
 [예수님, 정말 하실 말씀이 없으셨나요] 서울 기독교인문회사, 1997
 [심은 것보다 더 많은 열매] 기독교대한감리회 출판국, 2012
 [주님을 기다리며(2017 대강절 묵상집)] 기독교대한감리회 출판국, 2017

	입교인수	경상회계 수입결산	지방 부담금	연회 부담금	본부 부담금	은급 부담금	선교활동	
							국내	해외
2018년	1,432명	1,534,633,135원	18,836,000원	15,938,000원	14,489,000원	28,978,000원	35	12
2019년	1,440명	1,518,181,099원	20,298,000원	16,881,000원	15,346,000원	30,692,000원	33	13

“ 품위있고 질서있는 충청연회 ”

[고전14:40]

존경하고 사랑하는 충청연회원 여러분,
저는 충청연회 12대 감독 후보 박세영 목사입니다.
제가 감독후보가 되겠다고 했을 때에 많은 분들이 뜻밖의 결정이라고 놀라셨고,
어떤 분들은 제가 상처를 받게 될 것을 걱정하시며 만류하셨습니다.
그 분들의 놀랍고 만류하심의 이유를 제가 너무 잘 알기에
저 또한 많이 고민하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충청연회원 여러분!
저는 대부분의 연회원이 품고 있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함께 공감해 왔던
연회원 중에 한 사람으로 이제는 연회원 여러분들의 오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오랜 관행을 극복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진실된 믿음과 거룩한 결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바꾸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저는 우리 충청연회원들의 교회와 사역 속에서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들의 기도와 헌신 속에서
영적인 품위와 거룩한 질서를 보았습니다.
교회들이 유지하고 있는 영적인 품위와 거룩한 질서가
한국감리교회의 미래이며 소망인 것을 확신했습니다.
저는 연회 또한 하나님의 몸인 교회인 것을 확신하며
다음의 5가지 사역을 통해 품위있고, 질서 있는 연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1 화합과 나눔으로 코로나19 이후를 극복하는 연회 행정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불편하고 불안한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걱정은 코로나19 이후에 달라질 사회와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피할수도 없고, 연습해볼수도 없는 변화속에서 교회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교회 간의 화합과 나눔 뿐입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가 지난 6월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교회 결산이 30% 이상 감소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연회 부담금을 포함한 모든 연회 행정은 화합과 나눔 그리고 배려를 근간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교회 간의 화합과 나눔은 미덕이 아니라 생존의 필수조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화합과 나눔을 만들어내는 섬김의 리더십이 필요한 때입니다. 찾아가서 듣고 배우고 나누고 섬기는 감동이 되겠습니다.

2 언택트 시대를 대비하는 목회 및 교육 콘텐츠 개발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일반화 되면서 머지않아 온라인 교회도 세워질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언택트 시대 속에서 목회 콘텐츠,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야 합니다. 아직 전문가조차도 찾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언택트 시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위해서는 반드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목회와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연회교회학교연합회를 적극 후원하고 지원하겠습니다.

3 충청연회 희망봉사단을 통한 평신도 사역의 외연 확장과 전문화 추진

우리 연회 남선교회연합회와 여성교회연합회, 청장년회연합회 그리고 교회학교연합회는 이미 아름다운 사역의 전통과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회 안에는 충청연회 희망봉사단이라는 훌륭한 봉사기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봉사단의 아름다운 사역이 감독의 임기와 함께 단절되거나 혹은 방향이 바뀌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충청연회 희망봉사단을 사단법인으로 만들겠습니다. 희망봉사단이 법인으로 인가받게 되고, 전문가에 의해서 운영된다면 평신도 사회봉사단체의 외연 확장은 물론이고, 다양한 은사를 가진 평신도들의 네트워크로 사역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충청연회의 남,여, 청장년 연합회와 법인화된 희망봉사단의 협력은 코로나 19 이후 약화될 수 있는 평신도 사역에 중요한 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4

행복한 목회를 위한 목회복지

우리 연회 653개 교회, 8만 6천여 명의 성도들을 섬기는 1,000여명의 목사님 사모님들이 행복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의 은퇴 이후의 행복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은퇴예비학교를 개설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역에 몸과 마음이 지친 사모님들을 위해 사모학교를 개설하겠습니다.

형식만 갖춘 일회성 이벤트나 세미나가 아니라 사모님들의 진정한 쉼과 재충전의 기회를 만드는 사모학교를 만들겠습니다.

특히 비전교회와 차상위교회 목회자들의 생활과 자녀 교육에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목회복지 정책을 깊이 고민하여 목회자들이 첫 소명감을 유지하며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5

감리회의 복음주의 정체성 확립과 영성 회복

최근 한국교회는 심각한 숫자의 교인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예배를 드리게 되므로 믿음의 근간으로 여겨왔던 주일성수에 대해서도 심각한 인식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성경적인 동성애 문제와 신앙의 자유를 위협하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교회 안에서조차 찬반논쟁이 과열되고 있어 교회 분열의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사탄은 다양한 영상매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순수함과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성도들의 경건한 삶을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감리회 총회는 웨슬리 신학의 근간인 복음주의 신학을 단호하고 일관되게 표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감리회는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거역하는 비성경적이며 타락한 사탄의 유혹임을 선포해야 합니다.

또한 차별금지법 안에 들어 있는 일부 독소 조항은 신앙의 자유를 차별하는 역차별을 가져 올 뿐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가르칠 기회를 박탈하는 악법인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이를 막거나 수정하는 일에 감리회 모두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최근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악의적인 유언비어로 한국 교회가 배타적인 보수집단으로 매도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감리회는 더더욱 성경적 가치관을 고집해야 합니다.

저는 감독으로서 교회의 근간을 흔드는 비성경적인 문화와 타락한 가치관과 맞서 싸우겠습니다.

세종연회 제 4회 정기 회

사랑하고 존경하는 총청연회원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목사인지 제가 섬기는 대천중앙교회 홈페이지에 오셔서 지난 18년 동안 하나님께서 대천중앙교회를 통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